성화랑 8호 5차시 성화랑 플러스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예배

천원사

02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예배

생각 열기

오늘 주제는 뭐를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 제목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질문을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 point

1. 종교가 필요한 이유를 안다.
2. 예배에 가는 목적을 생각해본다.
3.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배운다.

-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에 간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딸 때문에 교회에 간다.'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교회에 간다.'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교회에 간다'라는 사람들은 다 못 넘어갑니다.
  누구 때문에 가느냐 하면 하나님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사랑으로 찾기 위해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천 11.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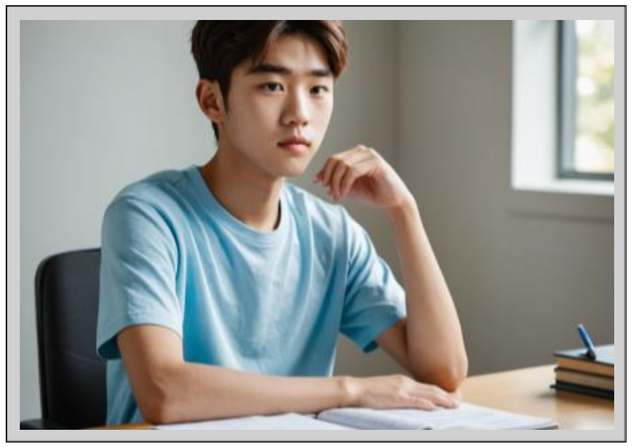
- 예배시간에 일찍 온 만큼의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바친 시간이기 때문에 천금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예배시간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늦게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예배는 제시간에 나와서 드려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만큼 못한 것을 탕감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면목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제보다 나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천 11.2.1:1)

-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는 예복을 입고 참석해야 됩니다. 겉모양의 예복이 아닙니다. 심정의 예복입니다.
  마음에서 말씀과 더불어, 찬송과 더불어 감격된 심정이 흘러나온다면 하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찾은 하나님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귀로 들은 그 하나님, 내 촉감을 통해 느껴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심정으로 스며들어 오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간섭하지 못합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나 권세가도 심정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을 떼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심정으로 사무쳐 들어오는 그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천11.2.1:3)

함께 나눠요

기억나는 단어 나누기

무슨 단어가 기억에 남았나요?
생각나는 걸 모두 3번에 적고 공유해요.



기억에 남는 구절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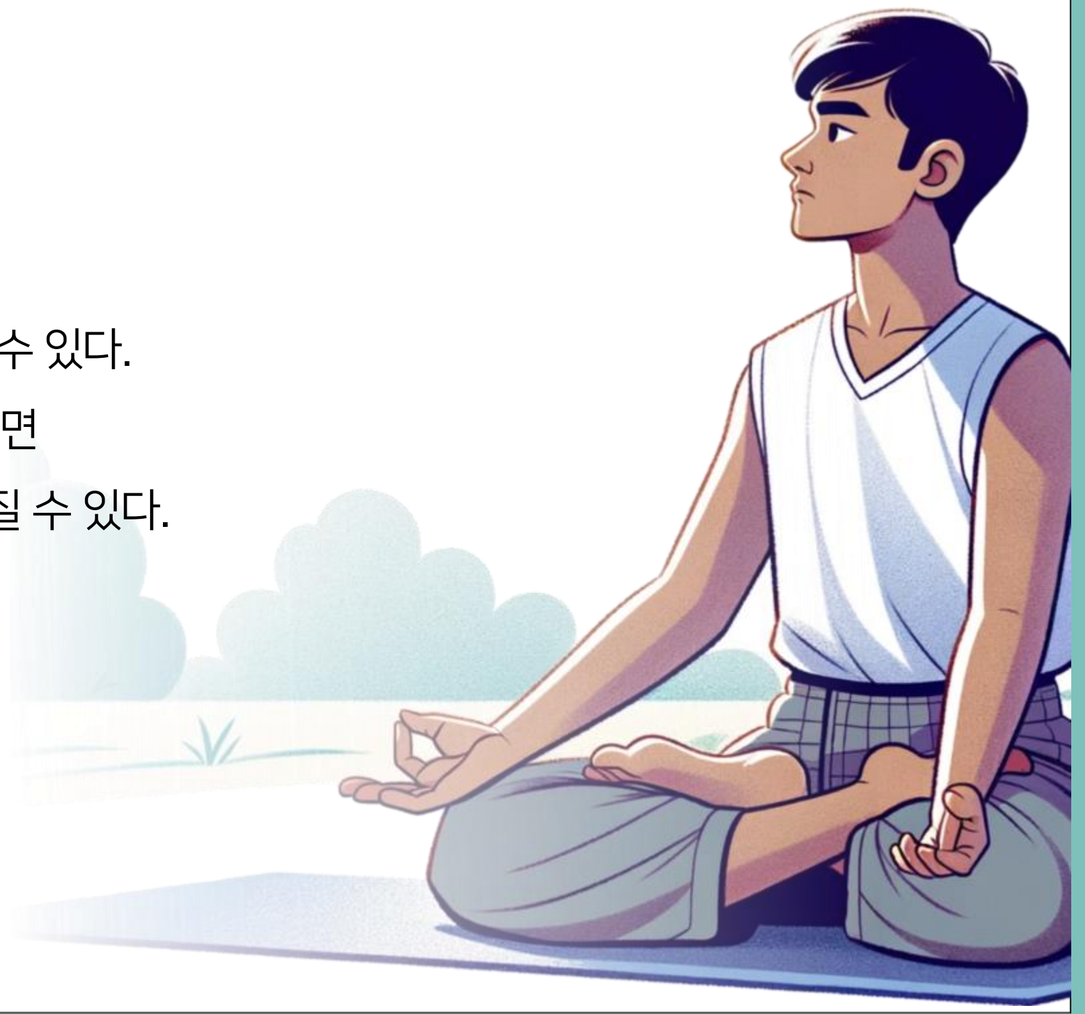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을 적어보고
짝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떠오르는 질문 나누기

서로 떠오른 질문을 공유해요.
질문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눠요.

지난 주 말씀 review

1. 기도는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2. 하늘부모님께 빌고, 부탁하는 기도보다는 사명을 위해, 타인을 위해,
   하늘부모님을 위로해드리기 위해 기도드려야 더 큰 은혜와 힘을 느낄 수 있다.
3.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늘부모님께 감사하는 심정으로 보고드리면
   하늘부모님께 가까워지고 내 영인체가 성장하고, 영적인 위력이 강해질 수 있다.



예배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에 간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딸 때문에 교회에 간다.’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교회에 간다.’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교회에 간다’라는 사람들은 다 못 넘어갑니다.
누구 때문에 가느냐 하면 하나님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사랑으로 찾기 위해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천 11.2.1:2)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많은 종교가 있어 왔는데
그 종교들은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하느냐?
모든 종교는 맨 먼저 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신에 대하여 가르쳐 주지 않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에 대해 가르쳐 주는데도 막연하게 가르쳐 주는 종교는 불확실한 종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 주는 종교가 참된 종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 하나님의 인격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 등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종교가 참된 종교입니다.
(18-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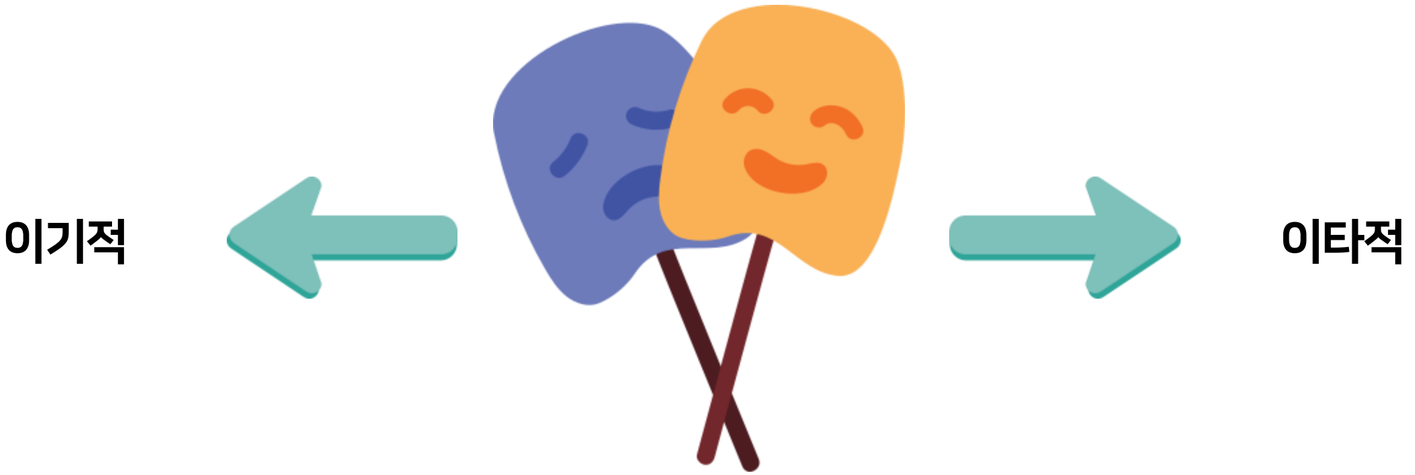
그러면 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개체목적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종교인들은 '아, 내가 종교 믿어서 구원을 얻고 내가 잘 되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종교를 믿는 것은 세계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인류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길입니다. (...)

인류를 구해서 그 인류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이 참된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나라보다 세계를 먼저 구하고 싶어하십니다. (80-201)



예배드리는 자세

예배시간에 일찍 온 만큼의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바친 시간이기
때문에 천금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예배시간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늦게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예배는 제시간에 나와서 드려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만큼
못한 것을 탕감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면목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제보다 나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천 11.2.1:1)

하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약속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더라도
절대적으로 엄수해야 됩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가다가 맙니다.
하늘은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애쓰는 사람을 대해 주십니다.
아무나 막 찾아가서 대해 주시는 하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시간만은 절대로 엄수해야 됩니다.
(천11.2.1:11)

Keypoint. 예배시간은 하늘부모님께 바치는 시간인만큼 정결한 마음과 몸을 준비하여 가자!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는 예복을 입고 참석해야 됩니다. 겉모양의 예복이 아닙니다. 심정의 예복입니다.

마음에서 말씀과 더불어, 찬송과 더불어 감격된 심정이 흘러나온다면 하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찾은 하나님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귀로 들은 그 하나님, 내 촉감을 통해 느껴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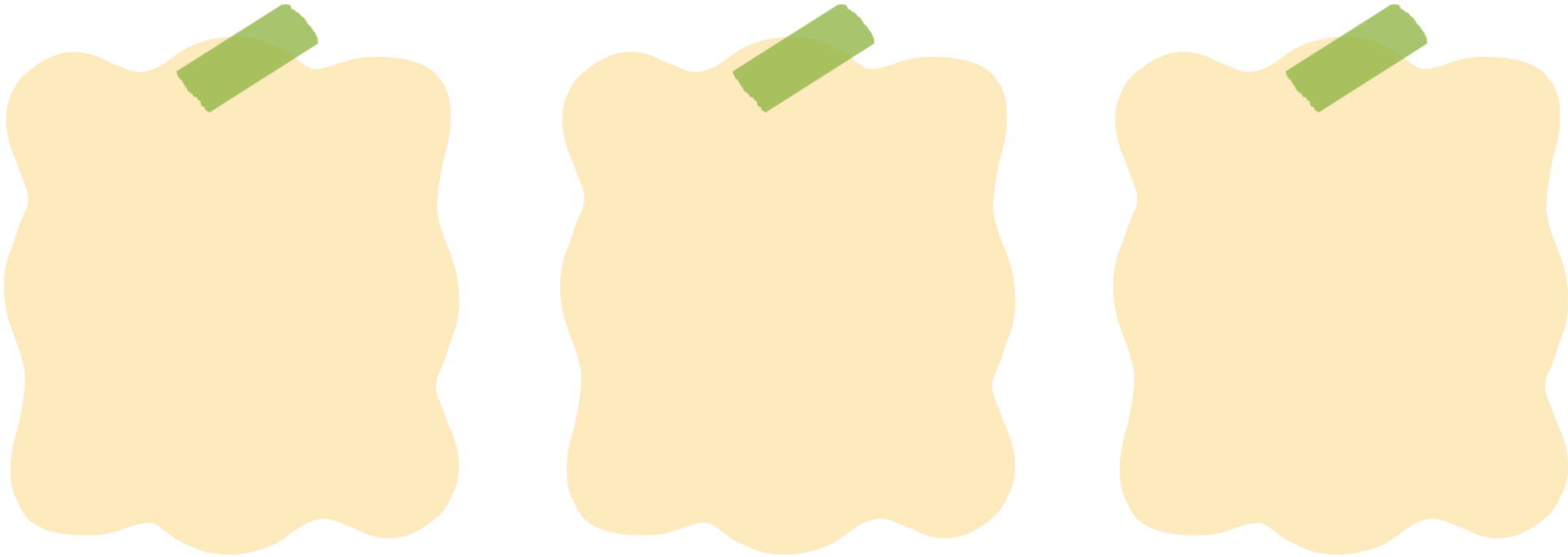
더 나아가서는 내 심정으로 스며들어 오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간섭하지 못합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나 권세가도 심정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을 떼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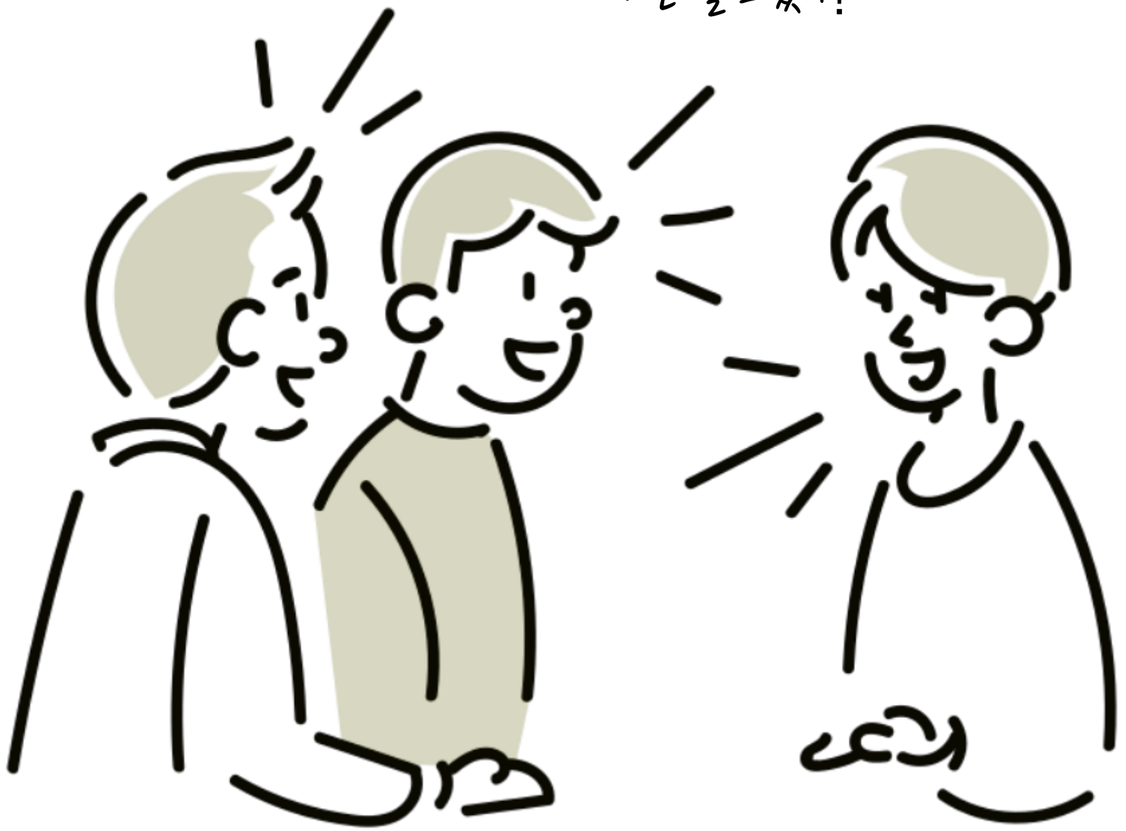
그러니 심정으로 사무쳐 들어오는 그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천11.2.1:3)

공과 <하늘부모님을 뵙기위한 준비>



오늘 말씀 듣고

어떤 걸 느꼈니?



정성 들이는 사람은 예배시간에 늦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 수 없는 죄인 중의 죄인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시간을 잘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남보다 더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시간도 안 지키면서 '오! 하늘이시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성은 남이 알게 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정성을 들이려면 차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걸어와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를 하고 와서 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성은 그렇게 들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환경과 그들이 추구하는 욕망과는 반비례하는 데에서

정성은 쌓아진다는 것입니다. (천11.2.1:10)

하늘부모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

참기쁨을 누려요...